

신고리 5·6호기 공론화위원회	<b>보 도 자 료</b>	(배포) 2017. 8. 11(금)
<b>즉시 사용</b>		
담당	국무조정실 신고리 5·6호기 공론화지원단	팀장 박지운, 사무관 심충구 (02-3148-0409, 0411)

## 신고리 5·6호기 공론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의 장 마련

- 건설중단 대표단체에 이어 건설재개 대표단체와도 간담회 개최 -

- 신고리 5·6호기 공론화위원회(이하 '위원회')는 어제(8.10) 신고리 5·6호기 건설 중단을 주장하는 '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·6호기 백지화 시민 행동'과의 간담회에 이어, 오늘(8.11, 10:30) 건설 재개를 주장하는 '한국 원자력산업회의'와 '한국원자력학회'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.
  - 오늘 간담회에는 (사)한국원자력산업회의 강재열 상근부회장, 한국원자력학회 임채영 총무이사, 한국수력원자력 한장희 지역상생처장이 참석했다.
- 간담회에서는 공론화위원회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, 공론화의 논의 주제 범위, 숙의절차와 방법, 시민참여단의 선발 및 운영 등 공론화 과정 전반에 대해 폭 넓게 의견을 나누었다.
  - 건설재개 대표측은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요 사실 관계의 확인을 위해 '팩트체크위원회'를 구성·운영해 줄 것,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이 원전건설 현장을 방문해 줄 것, 시민참여단에 지역 주민을 일정 부분 포함시켜줄 것, 시민참여단을 상대로 한 다수의 전문가 토론회 개최 등을 요청했다.

- 위원회는 요청사항에 대해 위원회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하겠다는 뜻을 전달하고, 향후, 공론화 설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만나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기로 했다.
  
- 위원회에서는 이번 대표단체간의 간담회에 이어 신고리 5·6호기 건설 지역주민과 관련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도 신고리 5·6호기 공론화 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